

물리치료실 탐방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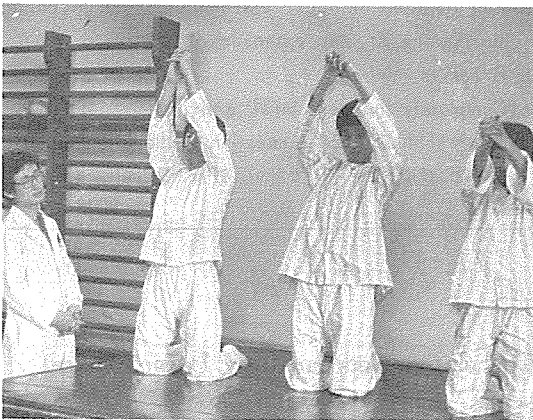
1949년의이방에 물리치료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부터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물리치료의 역사 또한 시작 되었다.

지난 1982년 5월에 우리나라 물리치료의 개척과 발전에 힘써오시다가 정년퇴임으로 고국인 미국으로 가신 모우숙(The lma B. Maw)선생님께서서는 1949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일원으로 물리치료의 개척과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오시면서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과 관계하시게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나라 최초 물리치료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1956년경에는 polio pack통이 없어서 polio packs을 냄비속에 넣고 끓이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등 고생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좋은 치료기구들과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으니, 발전된 치료기술과 더불어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해달라”는 선생님의 출국소감이 기자의 가슴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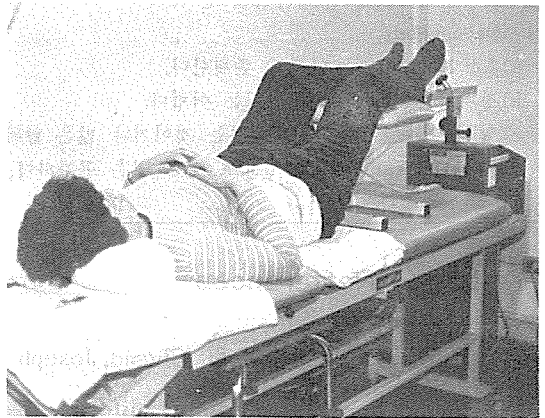
올해로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의 나이는 만 35년이라는, 강산이 3 번하고 반이 변한 연륜을 갖게 되었다. 1949년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이 개설 되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되지 못하였고, 그후 6·25동란이 발발하면서 철회 되었다가 환도후에 다시 개설되어 물리치료 활동이 재개되었다. 본격적인 치료활동은 1955년 그전의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에서 현 위치인 신촌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치료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물리치

료실장이신 김인숙선생님은 연대 간호대를 졸업하여 국내인으로는 처음으로 모선생님께 사사받다가 1958년 부터 물리치료실을 맡으시어 오늘에 이르러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역사의 산증인 이기도하다.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은 10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져 총 18명의 물리치료사와 3명의 작업치료사가 각 분야에서 힘쓰고있다. 전기치료기, 초음파치료기등의 기구를 주로 사용하여 정형외과적 질환의 환자와 말초신경질환 환자를 주로 다루는 외래치료실, 신경내외과 질환, 즉 중추신경계통 질환의 환자를 다루는 일반재활치료실, 병실의 bed side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위한 병실치료실과 견인치료실, 광선치료실, 수치료실, 뇌성마비아를 다루는 소아재활원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절단환자치료실 및 근전도실로 나뉘어져있다. 각 치료선생님들은 작업치료실과 근전도실을 제외한 8개의 Section을매 6개월마다 순회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며, 각 곳에서의 치료경험을 쌓고있다. 현재 외래치료실을 맡고 계신 분은 송연옥, 이영옥선생님, 수치료실은 김수미선생님,일반재활치료실은 어경홍, 황병용선생님, 견인치료실은 신정옥선생님, 병실치료실은 명철제, 박미원, 정혜현선생님,방선치료실은 배영환선생님, 소아재활원치료실은 표성봉, 임희숙, 백귀림, 문미향선생님, 작업치료실은 이한석, 김경선, 이재신선생님, 근전도실은 어경홍, 차기봉선생님이 각각 치료에 힘쓰고 계신다.



편마비 환자를 위한 group exercise



견인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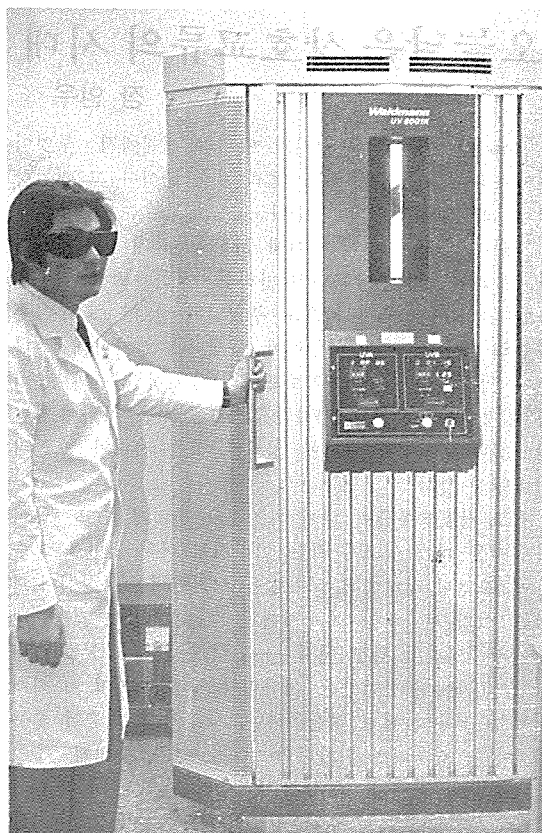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에서는 각 치료선생님의 일상과 이론의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해 과장님과 실장님의 직인교육이 매주 수요일마다 교대로 실시되고 있고, 매주 금요일은 치료선생님들간의 case conference, journal club, 연구발표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치료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매주 월, 수, 금요일은 Brunstrum의 치료방법을 이용한 hemiplegics group exercise, 화, 목, 토요일은 paraplegia환자를 위한 group exercise가 일반재활치료에서는 뇌성마비아를 위해 Vojta, Bobats, Branstrum과 Rood 등의 치료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83년 9월부터 광선치료실이 새로이 개선되면서 피부과와 직접적인 접촉을 갖고 종래의 자외선치료의 단점을 보완하여, PUVA치료라는 cabinet type의 치료로써 온 몸을 단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것으로 특히 건선과 백담환자에게는 그 치료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은 각 치료선생님의 질적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치료기술의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최신식 시설의 확장에도 역점을 두어 다가오는 1985년에는 연세대학교 설립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Rehabilitation center를 건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신정순과장님이하 실장님과 여러선생님이 서로 합심하여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선생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면허번호)



최근에 새로 도입된 Cabinet형 치료기 자외선

- 구 애련 (42)
- 김 인숙 (45)
- 표 성봉 (129)
- 명 철제 (255)
- 어 경홍 (322)
- 송 연옥 (368)
- 신 정옥 (475)
- 차 기봉 (482)
- 황 병용 (624)
- 박 내진 (761)
- 김 수미 (875)
- 이 한석 (902)
- 박 미원 (909)
- 김 경선 (980)
- 정혜현 (1110)
- 문 미향 (1332)
- 백 귀림 (1601)
- 이 영옥 (1610)
- 임 희숙 (1631)
- 배 영환 (1632)
- 이재신 (OT 28)



수치료실 전경